전국시공능력평가 대구 선두는 'HS화성'…서한, 2위 차지

HS화성, 평가액 8천584억 원으로 '전국 47위' 유지
서한, 8천74억 원 기록…전년대비 1단계 올라 50위
태왕·HXD화성개발, 2019년부터 꾸준한 상승세

대구지역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전국 순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HS화성	39위	43위	44위	42위	43위	47위	47위
서 한	46위	47위	48위	47위	48위	51위	50위
태 왕	84위	75위	72위	72위	67위	60위	54위
HXD 화성개발	117위	113위	112위	100위	112위	93위	91위
우 방	103위	80위	60위	58위	73위	251위	258위

자료 : 국토교통부

'2025년도 전국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대구지역 순위는 HS화성이 선두를 차지했다. 이어 서한, 태왕, HXD화성개발, 우방 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7만3천65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매년 7월 말 결과를 공시한다. 평가 결과는 공사 발주자의 입찰자격 제한, 시공사 선정,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HS화성은 시공능력평가액 8천584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전국 47위를 유지했다. 이어 서한은 8천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계단 상승한 50위, 태왕은 6천851억 원으로 6계단이나 상승하며 54위를 차지했다. HXD화성개발도 3천60억 원으로 지난해 93위에서 2계단 상승한 91위를 차지했다. 다만, 우방은 지난해 251위에서 258위로 7계단 후퇴했다.

특히,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지역 건설사는 태왕과 HXD화성개발이었다. 태왕은 2019년 84위에서 2020년 75위, 2021년 72위, 2022년 72위, 2023년 67위, 2024년 60위, 2025년 54위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했다. HXD화성개발도 2019년 117위, 2020년 113위, 2021년 112위, 2022년 100위, 2023년 112위, 2024년 93위, 2025년 91위를 기록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시공능력평가액 34조7천219억 원을 기록한 삼성물산이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17조2천485억 원과 11조8천969억 원으로 2위와 3위를 유지했다. 4위와 5위는 각각 DL이앤씨(11조2천183억 원)와 GS건설(10조9천454억 원)로, 두 회사는 지난해 대비 한 단계씩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올해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해 신규 수주를 위한 활동을 잠정 중단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4위에서 올해 6위로 순위가 두 단계 하락하면서 5대 건설사에서 밀려났다. 포스코이앤씨(9조8천973억 원)는 7위, 롯데건설(7조4천21억 원)은 8위, SK에코플랜트(6조8천493억 원)는 9위, HDC현대산업개발(5조8천738억 원)은 10위로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한화(4조9천720억 원), 호반건설(3조9천209억 원), DL건설(3조5천495억 원), 두산에너빌리티(3조3천931억 원) 또한 각각 11~14위를 차지하면서 작년과 비교해 순위 변동이 없었다.

김상진 기자 sjkim@idaegu.com



지난달 28일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에서 열린 '2025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통합 킥오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OTMI 제공

첨단제조로봇 실증 기업 대상 KOTMI, 통합 킥오프 워크숍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KOTMI)이 지난달 28일 '2025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공정모델형 선정기업들과 수출지원형 선정기업들을 대상으로 통합 킥오프 행사를 가졌다.

올해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은 공공 및 민간 제조시설에 로봇공정모델 실증으로 제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날 KOTMI 대강당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총괄주관기관인 KOTMI, 공정모델형 및 수출지원형 수행 5개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KOTMI의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 발표, 사업 수행 관련 안내와 질의응답, 한국로봇사용자협회(KORUA)의 작업장 안전인증 및 안전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제조환경 개선을 위한 공정모델형(공공·민간)과 함께, 해외 제조시설이 구축된 제조환경 개선을 위한 수출지원형으로 분류된다.

KOTMI는 올해 공정모델형 실증사업으로 금속·플라스틱, 자동차, 전기·전자산업의 대표적인 4개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설치를 지원한다. 또 수출지원형 실증사업으로는 섬유산업의 대표적인 1개 기업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설치를 도울 예정이다.

향후 첨단제조로봇 도입 기업 간의 성과 교류와 네트워킹을 위한 성과보고회도 열 계획이다.

김명환 기자

엘앤에프 2분기 출하량 55%↑ 3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 높아

Ni-95% 신제품 단독 공급 성과
전분기비 상승…3분기 연속 UP
LFP 양극재 등 하반기 '모멘텀'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이차전지종합소재 전문기업인 엘앤에프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체 속에서도 출하량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하반기 손익 개선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엘앤에프는 지난달 30일 열린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2025년 2분기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약 55% 성장하면서 3분기 연속 뚜렷한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엘앤에프 관계자는 "Ni-95% 신제품 단독 공급에 따른 고객사 점유율 회복과 신제품 대량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출하량 성장을 견인했다"면서 "Hi-Ni 제품 출하 지속 확대와 유럽향 물량 회복으로 연내 양극재 출하량 증가 흐름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연간 출하량 목표는 전년 대비 30~40% 증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하량 성장에 힘입어 2분기 매출액은 5천20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43% 증가하며 확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영업이익은 -1천21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14% 개선됐지만, 매출 성장 대비 손익 개선 폭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에 대해 엘앤에프 관계자는 "2분기 원재료 가격이 6월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바람에 추가 손실이 발생했으며,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 또한 수익성 회복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엘앤에프는 3분기를 손익 개선의 전환점으로 제시하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리튬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경우 재고평가 손실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3분기 출하량 확대에 따른 가동률 회복과 맞물리며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탄산리튬 가격의 반등 조짐 또한 실적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엘앤에프는 단기적인 수익성 회복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며 새로운 매출 성장축을 구축할 계획이다. LFP 양극재 신사업은 SK온 등 글로벌 Cell 업체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가 급증하면서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LFP 양극재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 수주 기회의 확대도 전망된다.

김명환 기자

"혁신 창업 아이디어 묵히지 말고 뽐내자"

신보기금 'Campus 경진대회'
지역 대학과 연계 기술·인재 발굴
20일까지 스타트업 등 참가 접수

신용보증기금은 지역 유망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대학이 보유한 기술·인재·아이디어의 창업 생태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5 대구·경북 Campus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경북권 대학과 연계해 소재·부품·제조·딥테크 등 혁신창업 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신보의 온라인 디지털플랫폼 'ON-Biz'를 통해 할 수 있다.

대회에서는 서류 평가를 통해 본선 진출팀을 선발한다. 선발된 팀에게는 아이디어 고도화 및 IR 피칭 역량 강화를 위한 1대 1 컨설팅이 제공된다. 이후 본선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6팀이 결선 무대에 오르게 되며, 결선은 10월 초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결선 무대는 대구지역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창업 특강, 채용설명회, 채용상담회 등 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 포함된 종합 컨퍼런스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결선 진출 6개 팀에게는 총 1천2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이후 맞춤형 금융지원도 연계된다.

아울러 신보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Start-up NEST 서류심사 면제, 민간 투자자 대상 IR 피칭 플랫폼인 U-CONNECT 참가, 대구지역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부스 참여 기회 부여 등 폭넓은 비금융 분야 후속 지원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지방에도 잠재력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들이 많다"라며 "신보는 단순한 경진대회를 넘어, 금융·비금융이 융합된 입체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대구일보 구독신청
053-7575-78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신청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가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등 예기치 못한 경영상 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약지원금은 올해 12월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3회 이상 정상 상환했으며, 지급일 기준 노란우산 계약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시 '새출발기금 상환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발급 관련 문의는 새출발기금 고객센터(1660-137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 가입자 182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연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 목돈 마련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도약지원금 신청은 8월1일부터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환 기자